



부채와 자살행위: 선행연구 및 지역경험

쌍화병원 정신과 李信謙의사

근대국가의 발전은 생명에 관한 여러 통계를 사회경제 및 공공위생의 지표로 삼는다. 더불어 이러한 통계를 사회 및 위생정책을 제정하는 근거로도 한다. 그 가운데 자살율은 한 지역의 집단 심리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많이 인용된다. 대만을 예로 들면, 자살사망율은 1990년대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 1997년에 대만 국민의 10대 사망요인 중 9위가 되어서 정부와 민중의 관심을 받았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마침내 2010년에 자살사망율의 증가가 억제되었고 10대 사망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자살예방정책의 성과로 자살사망율이 높은 일본과 한국 등 인근 나라의 관심을 받고 대만에 와서 참관하기도 하였다. ‘일본,한국,대만 자살 예방기관 삼자 협력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5년 후에 대만의 자살사망은 다시 대만의 10대 사망요인이 되었다. 이 현상은 자살행위의 예방의 어려움과 배후의 복잡한 요인들을 반영한다.

자살행위는 심리건강 장애의 극단적 표현으로 본다. 과거 반 세기 동안, 많은 연구들은 자살을 우울증 등 심리적 질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살은 심리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이고 우울증과 같이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관점은 예방정책의 제정과 추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의료화’와 ‘생물의료화’라고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추세는 자살의 개인적 요인을 더 중시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최근의 경제학인(經濟學人)신문은 한 글로벌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빈곤을 없애는 것보다 정신질병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 Durkheim가 백 년 전부터 사회요소는 자살행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제창하였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요소로서 채무가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2008년 Nelson 등 학자들이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무는 건강에 해치는 행위,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스트레스 관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횡적인 조사연구 때문에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가 없었다. 2011년 영국에서 Meltzer의 연구에서 부채는 자살 의지와 현저한 관련성이 있다고 증명하였다. 그래서 채무를 상담할 때 정신적 평가를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샘플수가 적어서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Richardson 등 학자들은 2013년에 상세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통합적 분석을 진행한 후에 채무와 심신건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하였지만 어느 것은 요인이고 어느 것은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 5년동안 자살 시도하는 개인 사례를 분석하는 결과, 채무는 자살행위를 일으키는 흔한 요인으로 발견하였다. 그러나 중요성의 순서로 보면 3%에 미달한다. 개인 사례를 분석해 보면 채무문제와 다른 자살요인의 제일 큰 차이점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개인에 그치지 않고 온 가정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보도된 자살 사건을 근거로 하면 채무 문제는 집단적 가정 자살 행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알 수 있다. 우리는 개인 사례와 신문에서 보도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채무가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능한 대응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